

세아아트조각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세 상 을 아 름 답 게 하 는 사 람 들

A full-body photograph of a man with short black hair, smiling broadly. He is wearing a short-sleeved, button-down purple shirt and black trousers. He is holding a white book open with both hands in front of his chest. The background is a soft, out-of-focus mix of pink and purple hues with some bokeh light effects.

모험심과 도전 정신으로
어떤 난관도 극복한다!

세아메탈 품질경영팀 고동일 과장
뜨거운 열정과 긍정의 힘이 있기에
그의 도전은 끝나지 않는다.





영웅의
플래시

평발과 왜소한 체격으로
대학과 프로팀 모두에게 외면받던 선수.
그러나 그의 경기 스타일은
공격과 수비를 가리지 않았고,
팀이 원하는 위치라면
어디서든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팀의 목표와 팀원들에 대한 배려를
가장 우선시한 그의 플레이는
결국 자신을 빛나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축구의 영웅,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뛰어난 재능이나 특기가 있어야만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Vol. 339

MAY¹ JUNE 2012

C o n t e n t s



FOCUS ON

- 02 **Hot&Issue**
- 세아베스틸,
1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개최
- SSU 김석일 법인장,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 04 **SeAH Special Report**
-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
신공장 이전
- 5기 챌린지 리더
- 10 **Open Your Team**
세아스틸파이프 생산+설비+물류팀
- 16 **SeAH Super Star**
세아메탈 원주공장
품질경영팀 고동일 과장

IMAGINE SeAH

- 20 **프롤로그**
소통으로 만드는 세상
- 22 **뿌리 깊은 나무**
헤르만 헤세의 서번트 리더십
- 24 **테마 인터뷰**
세아에샵 유덕상 대표
- 26 **테마 현장**
세아베스틸 소통의 현장
- 28 **테마 스토리**
세아홀딩스, '금주의 짝' 프로그램
- 30 **직장인 생활백서**
대화의 기술
- 32 **우리말바로쓰기**
좌충우돌 세철 씨의 직장어사전

HARMONY OF SeAH

- 34 **I ♥ SeAH**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 38 **지구촌 별별사람**
일본, 어디까지 가봤니?
- 40 **어느 멋진 순간**
세아에샵의 젊은 인재들-여수박람회
- 44 **세아뉴스**
- 47 **사우동정**



QR코드를 스캔하면 <세아가족>
웹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아 가 족
세아그룹 가족들을 위한 사보

<세아가족> 통권 339호 2012년 05+06월호

발행일 2012년 6월 11일 발행인 이운형 발행처 세아홀딩스기획·편집 세아홀딩스 02-3783-8163

디자인·제작 하나로에드컴 02-3443-8005 표지촬영 다부스튜디오 02-766-8025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1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개최



4월 26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세아베스틸의 2012년 1분기 경영실적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200명의 증권 관계자 및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휘 부회장이 직접 설명회를 진행했다.

세아베스틸은 2012년 1분기 매출 6,43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2%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철스크랩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제품 판매 단가 인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한 616억 원을 기록했지만, 자동차용 고급 합금강 부문(54.3%)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2분기는 상당한 수익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세아베스틸은 2012년 매출 2조 7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경남 창녕에 1,900억 원 투자를 진행 중인 2공장 건설은 부지 약 20만㎡(6만 평), 연 생산능력 54만t 규모의 압연 공장으로 2013년 6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국내 특수강 봉강의 총 수요는 2001년 이후 연평균 10.3%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재는 같은 기간 연평균 20%씩 늘어나고 있어 세아베스틸은 중국산 등 수입재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자동차, 산업 기계, 건설중장비, 조선 등 수요 산업의 큰 폭 성장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창녕에 2공장 투자를 통해 공급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대형단조 부문은 총 투자비 4,700억 원 가운데 2012년까지 4,000억 원이 투입되고 700억 원 규모의 열처리 및 가공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올해 4분기부터는 인종 획득과 탄탄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단조부문의 공급능력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 1,107억 원 투자규모의 연산 70만t 규모의 빌릿(Billet) 연주기 1기를 신설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공사가 마무리된다. 2013년 이후 제강 300만t 달성을 계획하고 있는 세아베스틸은 동종업계의 적극적인 투자에 대해서 품질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으로 차별화돼 있는 만큼 분명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한편, 세아베스틸은 2011년 기준 조강생산이 200만t을 웃돌아 세계철강협회(WSA) 가입을 신청해 놓은 상태로 오는 10월 인도 연차 총회를 통해서 승인이 공식 확정될 예정이다.

SeAH Steel UAE 김석일 법인장,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SSU 김석일 법인장이 6월 8일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철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석일 법인장은 아랍에미리트(UAE) 강관공장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에 이르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철강 교역량이 5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기록이 발표됐다. 누계 조강 생산량은 포항제철소 1기에서 첫 출산한 1973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11억만t, 누계 수출물량도 4억t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존자원 부족으로 철광석, 철스크랩 등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늘려온 가운데, 자동차, 조선산업 등에 철강재를 공급해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양까지 포함하면 철강산업의 수출량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기념식에서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눈부신 성과가 있기까지 한국 철강산업이 일궈온 의미 있는 성장 기록과 함께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온 철강인들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해 격려하며, 철강시장의 침체가 깊어지고 있는 시기에 다시 한 번 국내 주력 전통산업인 철강의 도약 의지를 다졌다.

한편,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포상하는 자리에는 SeAH Steel UAE의 김석일 법인장이 UAE 강관공장의 성공적인 투자로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석일 법인장은 UAE 현지 소재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UAE 강관공장 투자를 이끌면서 공장의 조기 완공과 적기 납품으로 현지 국내 EPC 업체의 고객만족을 실현했다. 또한, 한국 철강업체를 대표하여 UAE 제조 기간산업에 진출한 초대 법인대표로서 설득력 있는 지도와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공장 건설부터 설비 설치, 생산, 납품까지 전 부문에 걸쳐 안정화를 이끌면서 중동시장에서 한국철강 발전의 초석을 놓은 한편, 한국과 UAE 양국 관계 증진에도 기여했다. UAE 주재 한국대사관과 한국무역협회에서는 SeAH Steel UAE 강관공장 설립을 성공적인 투자사례로 분류하고 한국의 대표 우수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공장 이전으로 경쟁력의 날개를 펼치다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

냉장가전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가 5월 7일 새로운 거점으로 공장 이전을 마쳤다. 인도네시아 가전시장의 성수기 돌입과 맞물려 생산능력이 대폭 확대된 신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는 현지 냉장가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글: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 남명진 부장

신공장 이전으로 적극적인 수요 대응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가 최근 자카르타 서부지역에 위치한 델타실리콘 제1 공단에 약 7650㎡(2,312평) 규모의 신공장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과거 인근의 MM2011공단에 위치해 있던 공장은 약 1400㎡(418평) 규모로 협소한 여건이었다. 2009년 가동 이후 생산라인을 꾸준히 증설하며 생산규모를 확대해왔지만, 최근 3년간 TSW COIL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가공 물량이 늘어나면서 공장 내 가공이나 채고 적재 공간의 부족 현상이 심화돼왔다. 특히 지난해 성수기에는 24시간 3교대로 생산라인을 최대로 가동하면서도 공장 증축이나 생산라인의 증설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적극적인 수요 대응과 경쟁력 확대 차원에서 공장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새로 이전한 공장은 생산규모가 종전 대비 50%에 이르는 규모로, SKIN CONDENSER 연간 220만 대, WIRE CONDENSER 기준으로는 연간 40만 대에 이르는 생산능력을 갖추었다.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는 냉장가전에 사용되는 SKIN

CONDENSER, WIRE CONDENSER 등 부품을 가공 생산하여 인도네시아 냉장가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냉장 사이클 전문 회사이다. 새롭게 이전한 신공장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는 5월 이후 성수기에 접어들어 인도네시아 냉장가전 시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냉장사이클 전문 메이커로 발돋움

공장 이전과 함께 신규 가공설비의 도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설비는 1Door/2Door 냉장고 콘덴서인 SKIN CONDENSER 가공라인을 공정 별로 2기씩 운영하고 있고, 냉동고, 쇼케이스, 냉온수기용 냉장 콘덴서인 WIRE CONDENSER 가공라인 1기를 가동 중이다. 여기에 5월 SKIN CONDENSER 가공라인의 생산량 확대를 위해 자동 교정 절단기 1기를 추가로 증설했다. 오는 9월에는 가공 아이템의 포트폴리오 확대 차원에서 신규 아이템인 2Door 냉장고용 핀 에바 플레이트(냉장고용 증발기 제품)의 신규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월 5만 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계획된 신규 설비의 도입으로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는 냉장 사이클 제품 중 중요 핵심 부품인 콘덴서 라인과 에바 플레이트를 접목시켜 냉장 사이클 제품의 전문 메이커로 지속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65%, 현지화 노력으로 경쟁력 선도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는 2008년 8월 법인을 설립하고 이듬해 2009년 2월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이 공장에서는 냉장가전 부품 콘덴서를 가공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로 PANASONIC, SHARP, TOSHIBA, POLYTRON, ASIA ELECTRONIC, BAJA PUITH, MAYER JAYA, HAIER, SANKEN 등 현지에 진출해 있는 일본이나 인도

네시아 로컬 가전회사들이 있다. 인도네시아 6대 메이저 고객사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냉장 콘덴서 시장에서 6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는 냉장 부품 파트에 에바 플레이트 부문의 추가 공급을 시도하면서 명실공히 인도네시아 냉장 부품 시장의 선두 주자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나아가, 인도네시아 냉장 부품에서의 경쟁력 선도를 위해 제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현지 인력의 업무를 세분화 및 전문화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 있는 업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현지화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냉장가전 시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산업 육성 정책과 더불어 소비시장의 확대로 2010년부터 연간 18.7%의 성장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는 경쟁사 우위의 첨단 자동화 설비와 함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품질을 생산하며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 나갈 방침이다.



5기 챌린지 리더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다

5기 챌린지 리더 워크숍

5기 챌린지 리더 과정의 2차 워크숍이 5월 24~25일 경기도 우리인재원에서 진행됐다. 2차 워크숍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테마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19명의 5기 챌린지 리더들은 현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기법과 접근방식에 한층 더 높은 관심과 집중을 보였다. 5기 챌린지 리더들의 변화를 향한 열정의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5기 챌린지 리더의 탄생

9개 계열사에서 총 19명이 5기 챌린지 리더로 선발되어 4월 25일 임명장 수여식과 동시에 1차 워크숍에 들어갔다. 세아의 가치인 감사와 겸허,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각 사 현업에서 우수한 업무 수행능력과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견 실무자들이 선발 대상이 됐다. 이들은 1년간 총 8차수의 워크숍을 거치면서 조직, 나아가 세아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소양을 키우기 위한 다양하고 집중적인 학습과 체험을 하게 된다. 2008년부터 각 계열사의 대리에서 과장급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특별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챌린지 리더 과정은, 세아의 대표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4년간 총 69명이 챌린지 리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역량 향상을 이루었고,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능력을 배양하며 각 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직급별 해당자 모두를 대상으로 행하는 일반적인 직무교육과는 달리, 챌린지 리더 과정은 패기 있는 젊은 연령층에서 일정 요건에 따라 선발된 한정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인 만큼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 육성'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아홀딩스 이순형 회장은 5기 챌린지 리더 임명장 수여식을 통해서 "이 과정이 개설된 지는 몇 년 되지 않아 과정 수료자들이 아직은 초급 내지 중반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는 중이나, 머지않은 장래에 현업에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내는 인재로 성장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1차 워크숍,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이해하다

5기 챌린지 리더 과정의 지난 1차 워크숍은 업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시작됐다. 일반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 편견과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짚어보는 것이다.

비즈니스 문제해결의 이해는 챌린지 리더들이 1년 동안 수행할 개인별 문제해결 프로젝트 테마 선정을 위해서 필요한 개념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의 이슈를 바탕으로 현재의 업무에서 어려움을 야기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프로세스를 도표화하고 분석

챌린지 리더 과정은 각 직급별 해당자 모두를 대상으로 행하는 일반적인 직무교육과는 달리, 패기 있는 젊은 연령층에서 일정 요건에 따라 선발된 한정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프로그램인 만큼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 육성'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접한 챌린지 리더들은 기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와 해결책을 찾으려고만 했던 점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다. 문제 정의와 도출, 원인 분석, 실행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이해하고 실습을 병행하게 된 것이 문제해결의 이해를 높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는 과정과 Logic Tree를 완성하는 경험을 접하게 된다. 또한 문제의 영향력을 평가하여 주요 문제를 선택하고, 분석기법을 사용해 정의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혀보았다. 더 나아가 선택한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발상기법 등 해결 가능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최선의 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해결안을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실습이 마무리됐다.

19명의 5기 챌린지 리더들에게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단계별로 도구를 이용해 실습한 경험을 토대로 현업에서 개인별 문제해결을 위한 주제 선정과, 도구를 이용한 해결안 및 실천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로 주어졌다.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접한 챌린지 리더들은 기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와 해결책을 찾으려고만 했던 점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반응이다. 문제 정의와 도출, 원인 분석, 실행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이해하고 실습을 병행하게 된 것이 문제해결의 이해를 높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소에는 생각지 못했던 문제와 원인, 해결방법을 도출하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일상 업무에 활용도가 높고 의미 있는 과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빠른 진행으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2차 워크숍, 고정관념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도모하다

5월 24~25일 진행된 2차 워크숍에서는 문제해결 이론의 복습으로 시작하여 챌린지 리더들이 제출한 과제를 토대로 팀 및 개인별 리포트를 보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문제해결 방법론에 대한 복습을 통해 이론적 완성도를 높이고, 우수한 사례 연구를 접하며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모색했다. 이를 토대로 개인별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리포트의 평가결과

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팀 토의와 개인 실습으로 자신의 테마에 대한 리포트의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 이어져 왜 현업에서의 문제 해결이 어려운가를 주제로 하여 실용 트리즈를 이용한 기초 문제 해결 실습을 팀별로 실행했다. 아울러 이 사례를 통해 팀별로 현업의 문제 도출과 해결을 실습해보는 과정이 진행됐다.

개인별로 제출한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리포트에 대한 피드백을 거치면서 5기 챌린지 리더들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데 상당히 유익했다는 의견이다. 기존 문제들에 대한 접근의 오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기하게 되면서 업무 개선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점을 높이 샀다.

특히 팀원들에게도 전파하여 조직 내 업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는 반응이었다. 트리즈 기법 역시 사고나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좋은 촉매제가 되어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보였다. 문제해결에 대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만큼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기대도 보였다.

네트워크 형성의 좋은 기회

한편, 다양한 계열사의 동료들과 함께 하는 학습의 기회는 세아 내에서의 가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을 도와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기법들을 다룬다 보니 학습 난이도나 속도에 따라가기 바쁘지만,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자극이 높은 만큼 스킬 향상을 통해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싶다는 의지도 높았다. 향후 차수가 거듭될수록 개인별 프로젝트 수행의 진척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1년간 주어진 현업과 챌린지 리더 과정을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2차 워크숍에 참여한 5기 챌린지 리더들의 소감을 엿볼 때 앞으로의 교육과정이 부담이 되기보다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과정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전이 있는 곳에 변화와 발전이 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이란 주어진 어려운 목표에 다가서려는 욕심을 요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 처음 당하는 일을 성공시키려는 위험이나 실패를 무릅쓰는 노력이 있다.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의미로써 변화와 혁신의 의미가 은연중 자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승산이 희박하므로 변화와 혁신이 필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도전하여 성취하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사회든, 조직이든 회사든 의미 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된다. 바꾸어 말해 의미 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세계시장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세아에게는 도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챌린지 리더와 같은 인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창의적인 경험과 자극, 성찰로 이어지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세아의 미래를 가꾸어 나갈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는 5기 챌린지 리더의 모습을 기대한다.

더욱 강하고 단단한 파이프를 위해

세아스틸파이프 생산+설비+물류팀

지난 3월, 세아제강이 인수한 SPP는 '세아스틸파이프'로 새롭게 명칭을 바꾸고 세아제강의 울타리 안에서 힘찬 도약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전남 순천에 자리한 세아스틸파이프는 극후용 강관 생산을 통해 전 세계의 바다와 대륙을 누비며 세아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세아스틸파이프의 새로운 결심과 미래를 한 발앞서 내다본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도약

세아스틸파이프는 세아제강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강관 사업의 새 장을 열었다. 비운 뒤 더욱 단단해지는 땅처럼 세아스틸파이프라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은 강인한 의지를 갖추었다. 세아스틸파이프의 제품은 생산팀과 설비팀, 물류팀의 협력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순환되어, 국내는 물론 주로 국외의 해양구조물이나 해상풍력기, 해양플랜트와 같은 구조물용으로 수출되고 있다. 생산라인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설비를 통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연간 27만대의 후속 대

구경 강관과 더불어, 이후 세아스틸파이프 순천공장 옆 부지에 창원공장 이전을 진행 중이다.

창원공장은 스테인리스 강관, 티타늄 튜브 등 특수 강관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창원공장의 특수 강관제품에 세아스틸파이프가 생산하는 후속 강관의 영역이 더해지면 세아제강의 경쟁력은 국내의 시장에서 더욱더 맹위를 떨치게 될 것이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완벽한 호흡

생산팀의 업무는 크게 생산관리와 설비 업무로 나뉘는데, 원재료 입고와 제품의 생산, 조립, 공정관리를 담당하는 생산관리 파트와 13M PRESS BENDING, 4.2M ROLL BENDING, SPIRAL LINE(2기), 3LPE COATING 설비를 관리하는 설비 파트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생산팀의 장점은 팀원들의 끊임없는 열정에 더해진 경쟁력 있는 설비이다. 13M

생산팀이 세아스틸파이프의 선봉에서 전력투구하고 있다면, 설비팀은 생산팀의 업무가 최상의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PRESS BENDING, 4.2M ROLL BENDING 라인인 해양구조용 극후속 강관과 송유관 라인파이프 제작이 가능하며, SPIRAL LINE은 국내 최대 구경(4,000φ), 최대 두께(25.4T), 최대 길이(70m)로 국내 최고 사양의 설비이다. 또한 3LPE COATING 설비 역시 국내 최대 구경(3,000φ), 최대 길이(18m)의 상수도용, 가스 송유관용 피복이 가능하다.

생산팀 구성원들은 후속 용접강관에 대한 풍부한 생산 노하우와 강한 책임감으로 세아의 미래를 책임지고자 달리고 있다.

생산팀이 세아스틸파이프의 선봉에서 전력투구하고 있다면, 설비팀은 생산팀의 업무가 최상의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최적의 생산 환경이 유지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설비를 안정화하고 유지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원공장이 이전하면서 신규 설비 기획과 정비 공사 업무를 신속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도 모두 설비팀의 업무이다. 설비팀은 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을 찾아내 해결하며, 어떤 일이든 도전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생산된 세아스틸파이프의 제품들이 바로 물류팀의 손길을 거쳐 국내는 물론 세계로 뻗어나간다. 수주관리와 출하관리 파트로 나뉘어 출하계획과 상차업무, 납기 일정 조율과 관리, 공장 내 적재공간 관리까지 살피며 생산팀과 설비팀의 완벽한 협력에 마침표를 찍는다.

MINI INTERVIEW

“주인의식을 가지고 온몸을 던진다”

세아스틸파이프는 설비 가동이 2년이 채 되지 않은 신규 업체인 까닭에 세아제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젊은 피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아스틸파이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을 위해 설비 안정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직원들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창원공장 이전이 완료되면 우리 공장은 규모가 더욱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대량의 수요가 생겨나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설비와 인력을 갖추게 됩니다. 저는 늘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져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열심히’를 넘어 ‘잘’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 잘 해내려면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것을 넘어 ‘이것이 나의 일’이라는 생각이 있어야만 가능하지요.

우리 세아스틸파이프의 직원들은 인내심이 강하고 열정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우리 공장은 세아 가족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에 세아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세아스틸파이프
류장림 상무

SSP

세아스틸 클라이프 생산+설비+물류팀



물류팀 이만걸 주임(좌), 신영남(가운데), 심명보(우)
남자답고 책임감 강한 이만걸 주임, 강인한 체력과 야성미 넘치는 신영남 사원, 그리고 탁구의 신으로 불리는 심명보 사원의 찰떡궁합은 물류팀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한다.



물류팀 박태호 주임(좌), 심성주 팀장(우)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박태호 주임과 호탕하고 자상한 심성주 팀장의 공통분모는 물류팀의 도약과 발전이라는 비전이다. 물류팀을 위해 뚝뚝 땀 흘린 이들의 팀워크는 단연 최고!



설비팀 김형국 대리, 이영재, 류장림 상무, 박승철 대리
(왼쪽부터 순서대로)
넘치는 힘만큼 열정도 넘치는 김형국 대리와 설비팀의 막내 이영재 사원, 자타공인 전기 전문가 박승철 대리, 그리고 온화하고 따뜻한 카리스마로 팀을 이끄는 리더 류장림 상무.



생산팀 박웅 과장(좌), 김성진 팀장(가운데), 김승현 대리(우)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 아래 연구와 개발을 멈추지 않는 김성진 팀장의 든든한 왼팔, 오른팔은 용접 강관계의 백과사전 박웅 과장과 한번 마음먹은 일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는 김승현 대리이다.



생산팀 황훈호 대리(좌), 허윤철 주임(가운데), 허가연(우)
허허실실 웃고 있어도 강한 책임감으로 업무를 척척 해내는 황훈호 대리와 프로의식으로 가득 찬 허윤철 주임의 콤비는 생산팀을 이끄는 견인차와 같다. 여기 생산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허가연 사원의 센스까지 더해져 더 할 나위 없는 팀워크를 보여준다.

세아메탈의 품질은 내가 책임진다!

전대미문의 영웅

‘동에 번쩍, 서에 번쩍’이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세아
메탈의 홍길동, 고동일 과장. 완벽함을 추구하는 냉철한
마음과 세아가족의 명예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
기에 영웅의 낮과 밤은 양날의 검이다. 힘들지만 힘차게
내딛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아메탈의 족적에 큰 울
림을 더할 것이다.

품질에 관한 한 간간하고 엄격하게

첫눈에 보아도 서글서글한 눈과 큼직한 이목구비는 고동일 과장의 성격을 직
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꾸밈없는 솔직함, 그리고 든든함이다. 고동일 과장
이 몸담고 있는 세아메탈 원주공장에서는 자동차 조향장치의 보안부품인 랙바
(Rack Bar)를 생산한다. 운전자의 Steering Wheel 조작에 의해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랙바는 자동차에 탑승하는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부품으로, 안정성과 완성도 부문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세아메탈의 사
외불량률이 제로PPM(백만 개당 불량 수)이라는 점은 세아메탈의 기술력을 반
증한다.

세아메탈 품질경영팀의 주된 업무는 품질기획과 관리, 품질보증과 개선업무이
다. 최근 세아메탈 원주공장은 국내외 활성화된 자동차 산업의 성공에 힘입어
자동차 랙바(Rack Bar) 수요의 증가로 설비 증설을 추진해왔다. 설비가 증설되
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품질경영팀의 역할이다.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품질
을 안정화시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모두 품질경영팀의 어깨에 달
려있기 때문이다.

품질경영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고동일 과장은 품질 시스템 관리와 각
종 고객심사 대응, 손실비용을 줄이기 위한 경영자료 보고 등 주로 고객과의 창
구이자 세아메탈의 제품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두루 돌보는 엄마와 같은 역
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에 솔직하고 듬직한 그의 성격이 백분 발휘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품질 관련 업무는 생산의 작업 과정과 제품의 완성도에 대해서 간간하게 검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와 대립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일
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협력의 힘을 가장 잘 알고, 또 그 목적을 명확히 알고 있는
고 과장의 좌우명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결부되어 있는 부품을 생산하는 만큼 철저한 검토와
세심한 관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아메탈에서 일하는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
하면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좋은 제품을 위해 노력하고 고
생하는 생산팀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엄격한 마지막 검증이 필요합니다.”

세아메탈원주공장품질경영팀 과장

고동일



긍정의 힘과 실행력을 갖춘다

철두철미하고 불도저 같은 고 과장의 거친 모습 뒤에는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인지 그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안될 거야”, “안되면 어떻게 하지”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다. 스스로 가장 큰 장점을 ‘긍정적인 성격’으로 꼽는 고 과장.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그의 말 속에서 자신감을 읽을 수 있었다.

긍정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실행의 힘’이다. “제각각 다른 능력과 역량이 있기에 시작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꼼꼼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죠.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을 넘어서는 것은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매 순간 열정을 담아 몸으로 부딪히며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고 과장의 지론은 ‘몸이 익힌 노하우나 기술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역시 몸으로 직접 부딪히라고 말했다. 책상에 앉아 많은 매체를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죽은 지식이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식을 현장에서 직접 써보고 만지며 몸으로 익히면 잊어버리고 싶어도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지식이 된다고 했다.

여전히 지금,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직접 해본다는 고동일 과장의 올해 목표는 세아메탈의 품질 시스템 등급을 최상급으로 올리는 것이다.

profile

이름 고동일

좋아하는 것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모든 구기 종목, 자고 있는 아기 모습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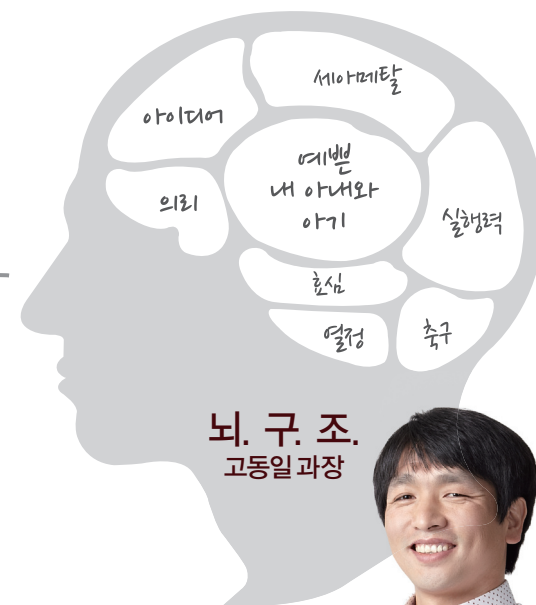
싫어하는 것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

좌우명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잘난 사람 보면 그것을 배우고, 못난 사람 보면 그렇게 행동하지 말자고 다짐한다.]

나 정말 전생에 홍길동이 아니었을까?

홍길동 닮은 꼴, 고동일 과장의
홍길동 본능 공개!



뇌. 구. 조.
고동일 과장



1

순발력과 열정

축구를 즐기는 저는 상대편 공격수가 공을 몰고 돌진해 올 때 짜릿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온몸에서 끓어오르는 강한 에너지와 본능적인 순발력을 발휘해 완벽한 수비를 했을 때 내 안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집중력과 끈기

공장에 몸담고 있어서 그런지 특히 설비든 제품이든 제가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되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될 때까지 해내고야 맙니다.

3

따뜻한 마음

강하고 굳센 홍길동 역시 부모님을 떠올리며 눈물짓기도 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감성이 풍부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내와 같이 슬픈 영화를 보면서 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4

효심이 가득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아들딸이나 다 똑같겠죠? 농사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열심히 도와, 꼬박 하루 걸릴 일거리를 만나질 만에 해치웁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5

함께 즐기는 풍류를 아는 사람

단합을 위한 회식 자리에서 처음에 홀로 조용히 술을 마시던 저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함께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유쾌한 분위기를 만드는 저의 모습, 풍류를 아는 홍길동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신으로 만드는 세상



크고 멋진 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퉁한 나무도
홀로 숲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혼자 세상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욱 울창한 숲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을 통해 어우러지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함께 만드는 세아, 그 모습을 기대합니다.



Servant Leadership

“자신을 낮추는 리더, 변화를 받아들이는 구성원” 헤르만 헤세의 서번트 리더십

‘리더는 감시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서번트 리더십. 지난 몇 년간 화두로 떠오른 서번트 리더십은 많은 리더와 경영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며 사고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한 리더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변화를 어색해하는 구성원들이다.

글: 엘테크리더십개발원 이관웅 대표

정신적인 지도자, 서번트 리더

1970년대 미국의 경영학자 로버트 그린리프는 <리더로서의 서번트: Servant as Leader>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출판했다. 여기에 소개된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은 리더십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됐다. 그린리프는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단편 소설에서 서번트 리더십의 철학과 개념을 발견했는데, 그에게 서번트 리더십의 통찰력을 가져다 준 헤세의 소설은 종교집단의 지도자들이 동방의 성지를 찾아 순례를 떠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소설의 순례자 집단은 레오라는 서번트, 즉 하인을 데리고 동방으로 여행을 떠난다. 고달픈 순례의 길에서 레오는 순례자들의 여행이 무사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고, 먹고 마시고 쉬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일을 보살핀다. 하찮은 일을 묵묵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순례자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기도 했다. 덕분에 순례자들의 여행은 순조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레오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동안 레오의 존재를 매우 하찮게 느껴왔던 순례자들은 큰 혼란에 휩싸였다. 동방으로의 여행은 엉망이 되어 버렸고, 순례자

들은 방향을 잃고 헤맸다. 순례자들은 레오가 그들에게 있어서 공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때 순례자 중의 한 사람이 레오를 찾아 나선다. 몇 년을 헤맨 끝에 레오를 찾아낸 그는 자신의 수색작업을 후원했던 교단으로 인도됐다. 그리고 그는 순례자 집단의 서번트였던 레오가 실제로는 교단의 최고 책임자이자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장 훌륭한 리더는 다른 사람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 헌신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헤세의 <동방순례>에서 그린리프는 서번트 리더십의 철학과 개념을 찾아냈다. 그리고 이것은 노자가 주장하는, 가장 훌륭한 리더는 가장 낮은 곳에 자신을 두고 있다는 사상과 일치하기도 한다.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리더십에 대한 관심은 동서양을 막론한 최대 관심사로 자리매김해왔다. 리더십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문헌들이 쏟아졌지만 그에 대한 정답은 없다. 그만큼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지역적 요인들이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얽혀 있기 때문에 조직이나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리더십 행위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정의되는 리더십의 근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즉, 훌륭한 리더십 행위의 중심에는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서번트 리더십은 시대의 흐름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리더가 바뀌어 가는 리더십 스타일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리더가 가져야 하는 철학이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조명을 받기 전 이미 역사 속의 훌륭한 리더들에게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예수의 사랑에 기초한 리더십 행위, 부처의 자비를 근간으로 한 리더십 행위,

간디나 마틴 루터 킹의 인간평등에 기초한 리더십 행위, 그리고 마더 테레사의 배려와 관심에 기초한 리더십 행위 등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바로 타인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 즉 이타심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다. 즉, 훌륭한 리더는 자신의 이기심을 희생하고 이타심과 겸손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을 수 있었다. 지위에서 주어지는 권위를 이용해 위기감이나 불안감을 조성하여 복종시킨 리더들은 존경받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CEO나 리더들은 구성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번트 리더십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왔다. 신뢰가 바탕이 되는 기업의 일터에는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몰입과 헌신, 그리고 상하, 동료 간의 높은 협력 및 조직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찾아볼 수 있다. 치열한 시장경쟁과 빠른 변화가 일상이 된 지금은 더 이상 지시와 통제로 이루어진 권위적 리더십이 조직의 번영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리더의 변화를 낮설어하지 말자

서번트 리더십의 철학이 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리더들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이다. 조직의 많은 리더들은 리더십 행동을 [지시-통제-평가] 중심에서 [지시-코칭-피드백] 중심의 리더십 행동으로 전환시켜갈 때 가장 큰 장애요인이 자신들의 변화를 투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성원들이라는 점을 하소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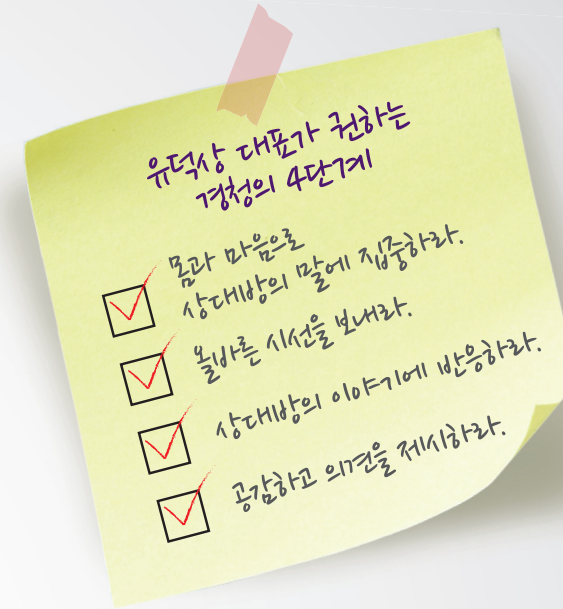
신뢰는 열린 커뮤니케이션의 출발이다. 상하간의 쌍방향 소통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상사와 구성원 모두 새로운 시각에서 서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상사는 구성원들이 지시와 통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넘어 그들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고를 내면화시켜야 한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상사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들에게 지시하고 평가하는 감독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성공과 성장을 돕는 지원자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 내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서로의 주요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서로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깊어질수록 강한 팀워크가 발휘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의 잠재적 역량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이러한 조직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세아에샵은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주관한 2012 한국노사협력대상에서 중소기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것은 세아에샵의 문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비단 이번 수상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의 모범이 되고 있는 세아에샵. 입사한지 올해로 1년이 되는 경영지원실 진승래 사우와 함께 유덕상 대표를 만났다. 그가 생각하는 소통이란 무엇이며,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이란 어떤 것인지 물었다.

소통의 힘 경청하고 이해하라

Q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소통은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 사이에서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좋은 소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서로 오해나 벽을 깨기 위한 노력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이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봅니다. 얼마 전 책에서 40년 동안 함께 산 노부부의 이혼 이야기를 읽고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함께 하기로 하고 들어간 식당에서 닭 요리가 나오자,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그릇에 날개를 떼어 넣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는 날개를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통닭의 무슨 부위를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나 있어요?”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단적인 상황이지만 40년 동안 서로 대화가 얼마나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런 오해는 생기지 않았겠죠. 기업도 개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소통의 부재로 인한 것입니다. 기업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어떤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결코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소통은 이처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죠. 대화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경청이야말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지요. 그러나 요즘의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 내 의견을 먼저 피력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듣는 척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진정한 경청이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의 표시로 맞장구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마음을 얻는 모든 것들이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마치 실적을 쌓듯이 평소애 차근차근 쌓아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Q 아무리 다가가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나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소애 나와 대화를 잘 나누지 않는 사람입니다. 삶은 사람일수록 더욱 다가가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아주 작은 공통점이나 공감대가 생김으로써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오해와 선입견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을 거야' 하고 선불리 내린 판단이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벽입니다.

Q 세아에샵은 노사협력에 관한 수상 이력이 많습니다. 노사 문화가 탄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우리 세아에샵은 1985년 설립된 이후 한 번도 노사 분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경영진과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으려는 꾸준한 노력 덕분입니다. 소통을 바탕으로 단단하게 쌓아온 신뢰가 있기에 가능했겠죠.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신입사원 부모님 초청행사과 같이 사원들의 가족까지 우리 모두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세아에샵의 전통이자 자부심입니다.

Q 마지막으로 세아 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어떤 사람든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세아 가족들이 준비된 자세로 찾아올 기회를 잡기 위해 깨어있다면 우리 세아의 미래도 밝을 것입니다. 둘째, 꿈을 크게 꾸었으면 합니다. 세아의 꿈은 우리 세아 가족들의 꿈과 같습니다. 세아 가족들이 얼마나 큰 꿈을 꾸느냐에 따라 세아의 꿈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세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세아베스틸 소통문화의 기초를 다지다

사회 각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소통'을 위해 세아베스틸은 2011년 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세아베스틸 베프(Best Pride)과정'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 전과 후로 나누어 진행한 설문 분석 결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은 무척 강한 반면 팀 내 소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 결과 보고를 통해 2012년의 화두가 '소통'으로 정해졌다. 세아베스틸 이승휘 부회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유용한 소통을 위해서는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주제를 정해 준비·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소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각 팀에게 자율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워크아웃 미팅이 도입됐다. 자유롭게 거침없는 분위기에서 계층별, 분야별 제한없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진행하면서 업무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이 활동을 통해 다국적기업 GE에서는 신속하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룬 바 있다.

세아베스틸은 현업에서 워크아웃 미팅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능직 사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질문지를 받아 팀의 현안 문제와 함께, 소통을 가로막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제를 정해 사전 공지를 하고, 미리 생각할 시간을 제공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소통의 물꼬를 트다

워크아웃 미팅은 현재 기능직이 있는 모든 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실시 형태는 팀 내부 환경과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실시했으며, 시간 역시 팀 사정에 따라 4~8시간으로 유연성 있게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 6월 8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된 이 활동은 4월, 대형압연팀과 대형정정팀, 특)생산관리팀, 소형압연팀에서 실시되었고, 5월과 6월에는 제강팀/연주팀, 안전환경팀, 업무지원팀, 소형정정팀, 설비부문, 단조사업본부, 일반단조팀, 2차가공팀, 품질보증팀, 시험연구그룹, 수입검사팀/자재관리팀에서 실시됐다.

그동안 꾸준히 워크아웃 미팅을 실시한 팀과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팀을 비교하면 진행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통적인 반응은 무척 긍정적이었으며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특히, 팀장이 먼저 팀원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강의를 하고 솔루션버는 모습이 팀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워크아웃 활동이 잘 시행되도록 세심히 준비했던 사무기술직 사원과 휴일에도 불만 없이 참여한 기능직 사원,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낸 임원진들의 힘이 모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더불어 팀원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팀에 관련된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는 것은 물론, 워크아웃 활동의 마지막 순서인 팀장과의 간담회 시간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마음에 와 닿았다는 평이 많았다. 향후에는 매년 이러한 형태의 워크아웃 활동을 실시하여 다 같이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고, 팀장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진정한 소통이란,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한다. 평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가득했지만, 시간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해 볼 만한 기회가 부족했던 세아베스틸 사우들에게 이번 워크아웃 활동은 팀 내의 소통 문제로 쌓였던 크고 작은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로 인해 쌓였던 오해를 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될 워크아웃 활동으로 인하여 팀 구성원들은 문제를 공유하여 인식할 수 있고, 다각도의 해결 방안과 각기 다른 공정이 가지는 다채로운 시각으로 동시에 해결책을 찾을으로써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 내 소통의 장을 열어라

세아베스틸 소통의 현장, 워크아웃 미팅

최근 세아베스틸 조직 곳곳에서는 소통에 관한 고민이 한창이다. 조직 내 소통에 관해 고민하고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을 함께 생각하는 세아베스틸의 워크아웃 타운미팅은 4월부터 조직 단위로 사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진행되며,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세아베스틸의 소통 문화를 한층 성숙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글: 세아베스틸 인재개발팀 전민상 과장



세아홀딩스 '금주의 짹' 프로그램

통통 튀는 우리들의 소통 프로그램, 세아홀딩스 '금주의 짹'을 소개합니다. 세아홀딩스 전략기획팀에서는 구성원 간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부 직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내부 소통 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 중입니다. 알콩달콩 재미있는 소통 타임, 지금 시작!

세아홀딩스 전략기획팀의 **준계 워크숍**에서는 **소통**이 가장 큰 화두가 됐습니다.

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내부 소통**을 위해서 어떤 실행을 했는지를 생각해보면서 토론을 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들은 실제로

소통을 위한 **실행이 부족**했다는 지적으로 압축됐습니다.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잘못된 정보의 양산**, 시너지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랐습니다.

소통을 위해 바로, 그리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전략기획팀에서는 **'금주의 짹'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간에 만남의 기회를 정례화하고

존중, 솔선수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파트너와 함께 업무상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금주의 짹' 프로그램이 진행된 지도 한 달여가 흘렀습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대화의 장이 된 '금주의 짹' 인증샷,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취지 세아홀딩스 전략기획팀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서 내부 직원들이 서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내부 소통 프로그램인 '금주의 짹'을 도입했습니다.

진행방식 '금주의 짹'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오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짹을 선발하고, 짹은 일주일에 식사/주류를 1회 함께 하면서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각 짹들이 함께 시간을 보낸 인증사진 한 컷을 찍어서 메시지와 함께 제출하면 취합하여 사무실 내에 전시하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기술 소통을 원한다면 이렇게 대화하라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동료와 선후배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고민한다. 하지만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말 한 마디에도 오해가 생기거나 상처를 입힐 수 있다. 하루의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직장, 제2의 식구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대화하는 법을 공개한다.

글: 자유기교가 박미지



● 말하기 전에 5초만 멈추라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 키케로는 “침묵은 예술이다. 웅변도 예술이다. 그러나 경청은 잊혀져가는 예술이다”라고 말하며 경청의 중요성과 그것이 간과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실제로 우리가 ‘말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잘 들어주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소통하여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역량은 유창한 언변보다 경청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누구에게나 선배나 상사의 반복되는 말이 잔소리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절대로 그 기분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먼저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생각해보자. 그 이유는 당신에게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말을 자르거나 파고들지 말고 핵심을 파악한 후, 상대방이 잠시 멈추는 순간을 기다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간추려서 말해보자. 예의있는 말투와 태도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조심해서 고쳐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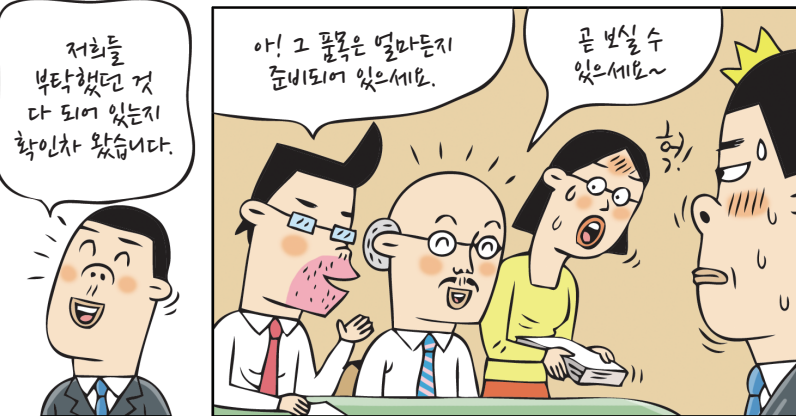
● 명령보다 질문이나 권유형으로 말하자

“김 대리, 그거 내일까지 준비해놔”, “○○씨, 상자 좀 치워요”라고 하는 말보다 “김 대리, 그거 내일까지 준비해줘요”, “○○씨, 상자 좀 치워줄래요?”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명령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별 의미없이 명령형 문장을 자주 사용했던 사람이라면 질문이나 권유형으로 바꾸어 말해 보자. 부드럽고 친절한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더 빠른 일처리를 가져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순간의 말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기를 꺾는 말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그 밖에도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의견은 틀렸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네요”와 같은 날카롭게 단정적인 말보다 “당신의 의견 중 이 부분은 저와 비슷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것 같네요.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와 같이 상대방과 자신의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다.



좌충우돌 세철씨의 직장어사전

회사 내에서 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식당에 가면 이런 황당한 존댓말을 듣게 됩니다. “손님, 이 옷은 만 원이세요”, “과장님, 여기 가방 있으세요”와 같이 물건을 높이게 되면 정작 높이고자 하는 대상은 물건보다 낮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라면 “손님, 이 옷은 만 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가방 있습니다”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 좋겠죠. 흔히 하는 실수지만 상대방에게 실례가 되니 주의하여 사용합시다.

더 높이, 더 멀리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에서 갈매기 조나단은 더 높이, 더 멀리 날기를 꿈꿉니다. 단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날아오르는 평범한 갈매기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지만 조나단은 결국 꿈을 버리지 않고 미지의 비행술에 도전합니다.

갈매기 조나단의 인생은 90%의 실패와 10%의 성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두려워 꿈을 꾸지 않는다면 영원히 성공을 마주할 수 없을 겁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더 높이, 더 멀리 나는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2012년 장학생 선발

20기 장학증서 수여식

세상을 아름답게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2012년 장학증서 수여식

5월 30일 세아홀딩스 본사에서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20기 장학생들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이 개최됐다. 2012년 20기 장학생 모집에는 전국 30여 개 대학에서 약 200명의 학생들이 지원하여 예년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최종 24명이 선발됐다.

20기 장학생 선발에 몰린 뜨거운 관심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에서 20기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공고가 온라인을 비롯해 전국 대학에 게시됨과 동시에 3월 26일부터 서류접수가 시작됐다.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대학생들의 지원 서류는 약 200건에 달해 장학생 선발에 쏠린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서류심사 과정에서는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TOP5' 포토 에세이에 담긴 학생들의 다양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이 단연 화두였다. 서류와 개별면접 심사를 거쳐 진취적이고 리더십이 돋보이는 대학생 24명을 최종 선발하면서 20기 장학생이 탄생했다. 이들에게는 향후 2년간 8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한편, 각지의 학교장으로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추천 받아 선발한 20여 명의 고등학생들에게도 2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게 됐다. 이로써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은 기존 장학생을 포함해 대학생 52명, 고등학생 42명 등 2012년 올 한 해 총 9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학금을 넘어 자긍심을 전달하며

5월 30일 20기 장학생과 만난 이운형 재단이사장은 새로운 장학생들과의 만남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인사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동안 전국 각지의 장학생을 한자리에 모으는 기념행사를 진행한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좋은 일이나 가치 있는 일을 내세우고 자랑하면 자칫 순수한 의미가 퇴색할 수 있고, 그것은 세아의 기본 가치인 겸허한 마음, 겸손한 자세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학생이 된 학생들을 위해서 "세아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은 사회가 여러분을 미래의 인재로서 인정을 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장학생들과의 만남을 갖게 됐다. 무엇보다 장학생들이 공부하는 분야들이 대부분 세아의 경영활동과도 밀접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언젠가 장학생들과 세아가 더 깊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랜만에 대학생들과 만난 이운형 이사장은 일상에 열심히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나 세계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넓은 시야를 갖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녕하세요?
세아해암학술재단 장학생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아름다운 만남

2012년 5월 30일 세아해암학술재단에서 장학생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세아 장학생이 된다는 것을 간절히 바랐기에 긴장감에 두근거렸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만남으로 기분 좋은 설렘을 느끼며 수여식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직원 분들께서 저희들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도움을 주셔서 부담과 걱정은 사라지고 장학증 수여식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또 회장님의 인생 이야기와 뜻 깊은 조언, 재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은 후, 20기 장학생들과의 소중한 만남으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은 우리 20기 모두가 좋은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각자 대학생활이 바빠서 타 지역의 다양한 학교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멀리서 온 친구들까지 볼 수 있어 좋은 자리였고, 비록 오전에 그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러한 소중한 인연과 그 인연을 만들어주신 고마운 세아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저는 장학생 모집에 지원하면서 20기 장학생이 되는 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업과 병행해오던 과외를 그만두기 시작하면서 전공 공부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좀 더 치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말했던 대로 정말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할 저의 뒤에서 세아가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저를 뽑아주신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게 꿈을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 것입니다. 또한 20기 장학생들의 모임이 단순히 한두 해에 그치지 않도록 20기 장학생 회장으로써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발전할 저의 뒤에서 세아가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에.....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기회로 삼아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세아의 이름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는.....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2012년 20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백수운입니다. 우선 저를 장학생으로 선발해주신 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연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공고를 접하게 되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원서와 포토 에세이를 작성하는 동안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행히 서류전형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는 날, 태어나서 처음 보는 면접이라 선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께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늦은 합격 발표에 많이 초조했지만 최종 합격을 했고, 이렇게 소감문을 작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아의 장학생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장학금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아에서 우리들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투자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가 아깝지 않도록 학교공부와 자기계발에 힘써 세아의 자랑스러운 장학생이 되겠습니다. 나아가 재료공학도로서 단순히 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닌,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꿈을 향한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의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기회로 삼아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세아의 이름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는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세상을 밝히는 인재로 발전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한양대 3년 **임정훈**
(20기 장학생 회장)

인하대 3년 **백수운**



일본, 어디까지 가봤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흔히들 일본을 일컬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생김새와 분위기도 비슷하지만 가까운 만큼
문화를 접할 일이 많아 일본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던 습관대로 생활을 하다가는 큰 실례를 할 수도 있죠.
일본의 문화와 사람들, 얼마나 알고 있나요?

글: TSS 해외총괄관리 김성현

작지만, 알고 보면 큰 배려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처음
이사를 해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이 굉장히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심지어 변기에는 호텔에서
보던 종이 덮개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덮개에는 “청소 완료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사를 갈 때 청소를
하고 가긴 하지만 쓰던 가구나 물건들을 두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짐
이나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새집처럼 청소하
고 고장 난 곳을 고쳐놓고 간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는 곳곳에서 엿보였습니다. 전철
에서 휴대폰 통화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예전에 인공심장을 갖고 있던
승객이 옆 사람의 휴대폰 전파로 인해 심장기능
이 멈춘 사건 이후로 철저히 제한되고 있다고 합
니다. 전철에서 휴대폰 통화가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풍경이죠. 실수로 휴대폰
통화를 한다면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인사를 좋아한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본인의 자랑
을 할 때 “사스가”라고 맞장구를 쳐 주면 분명히 뿌듯해할 것입니다. “사스가”라는 말
은 “역시, 과연”이라는 감탄사와 같은 것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또 자주 쓰는 말 중에 “도오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내다 보면 “도오모”
처럼 다양하게 쓰는 말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마중을 나온 거래처
사람에게 ‘일부러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내준 직원에게 ‘잘 마시겠습니다’,
헤어질 때 ‘잘 대접 받았습니다’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에 걸면 코
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아주 유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업무상의 메일을 주고받을 때 보통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활기찬 하루 되
세요”라는 문구를 일본 사람에게 보낸다면 “저는 건강합니다. 아프지 않아요”라는
회신을 받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활기차다’는 말이 아프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
게 힘내라, 쾌차하라는 의미를 담아 쓰는 말이라고 해요. 저는 한국에서 쓰던 대로
인사말을 썼을 뿐인데 아프지 않다는 회신을 받고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짜 반찬과 더치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밥을 먹는 일이겠죠. 일본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들어간 음식
점에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밥을 시켰는데 밑반찬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예요. 그래서 메뉴를 보고 기본 밑반찬을 따로 주문해야 했죠. 한 번은 고기집에 가서
고기를 시켰는데 어떠한 밑반찬도 나오지 않아서 이것저것 주문하다보니 밑반찬 값
이 고기 값만큼 나온 적도 있었어요.
또 일본에는 더치페이 문화가 일반적이라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말
로 본인이 먹는 것만큼, 십 엔, 일 엔까지 정확하게 나누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차갑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얻어먹게 된 사람은 큰 실례를 한 것처럼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늘 더치페이를 하는 건 아니고 서로 사 줄 때도 있어요.

정말로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죠? 일본 사람들은 예의를 중시
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서, 반대로 배려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낮설어하거나 어
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만 있다면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세아에삽의 젊은 인재들

바다 같은 품으로 모든 것을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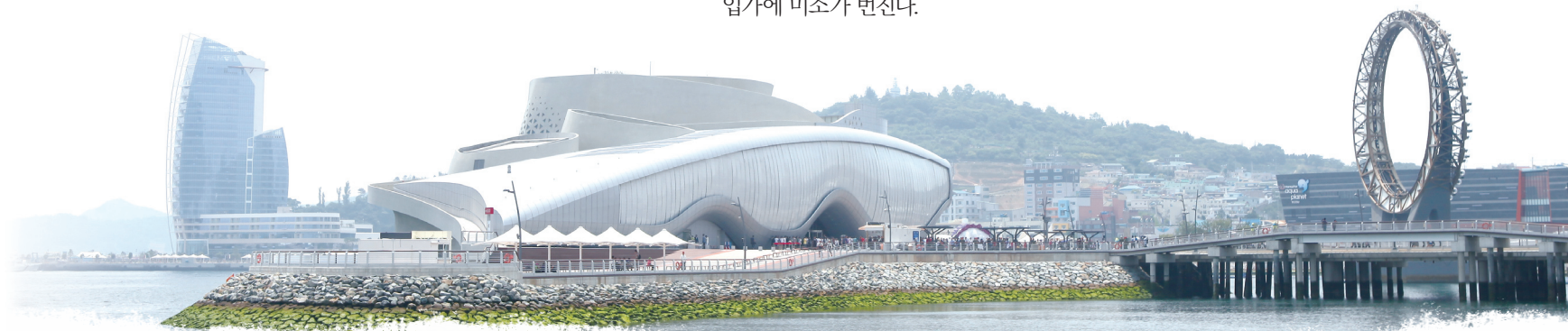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펼쳐진 여수세계박람회에 열정이 넘치는 사우들이 떴다. 비록 팀은 다르지만 세아에삽이라는 한 배를 타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노를 저어가는 네 사람. 바다와 육지, 자연과 인류의 발전이 어우러진 박람회는 공존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 여수에서 함께 소통하는 법을 아는 이들의 모습이 더욱 빛난다.

따가운 햇살로 인해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그래도 모처럼 야외로
나온 나들이라 그런지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핀다.

유쾌한 이들과 만나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걱정을 안고 출발한 여수. 걱정과는 달리 비가 오기는커녕, 따가운 햇살로 인해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다. 그래도 모처럼 야외로 나온 나들이라 그런지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핀다.

이번에 대리로 긴급한 이항호, 진재규 사우와 뛰어난 선배들을 열심히 보필하는 손진수, 홍준기 사우가 오늘의 주인공. 이들은 전시관에 입장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고, 박람회의 모든 것을 담아 가려는 듯 연신 개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 손진수 사우는 SNS족답게 실시간으로 사진을 올려 친구들에게 여수에 온 것을 자랑한다. 열심히 셀카를 찍던 손진수 사우는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오지 않는지 결국 옆에 있던 이항호 대리에게 부탁한다. “제가 포즈를 취할 테니까 잘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러곤 사진을 보여주더니 박장대소한다. 그 모습이 회사 선·후배보다는 친한 형, 동생 사이처럼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의 인연은 손진수 사우가 입사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이항호 대리는 국내영업팀으로 오기 전, 총무팀에서 신입사원을 선발·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 시기에 손진수 사우가 세아에 입사하기 위해 인·적성검사를 보러 왔고, 감독관으로 있던 이항호 대리를 처음 만났다. “대리님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전 감독관으로 오셨던 대리님을 또렷하게 기억해요”라고 말하는 손진수 사우는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지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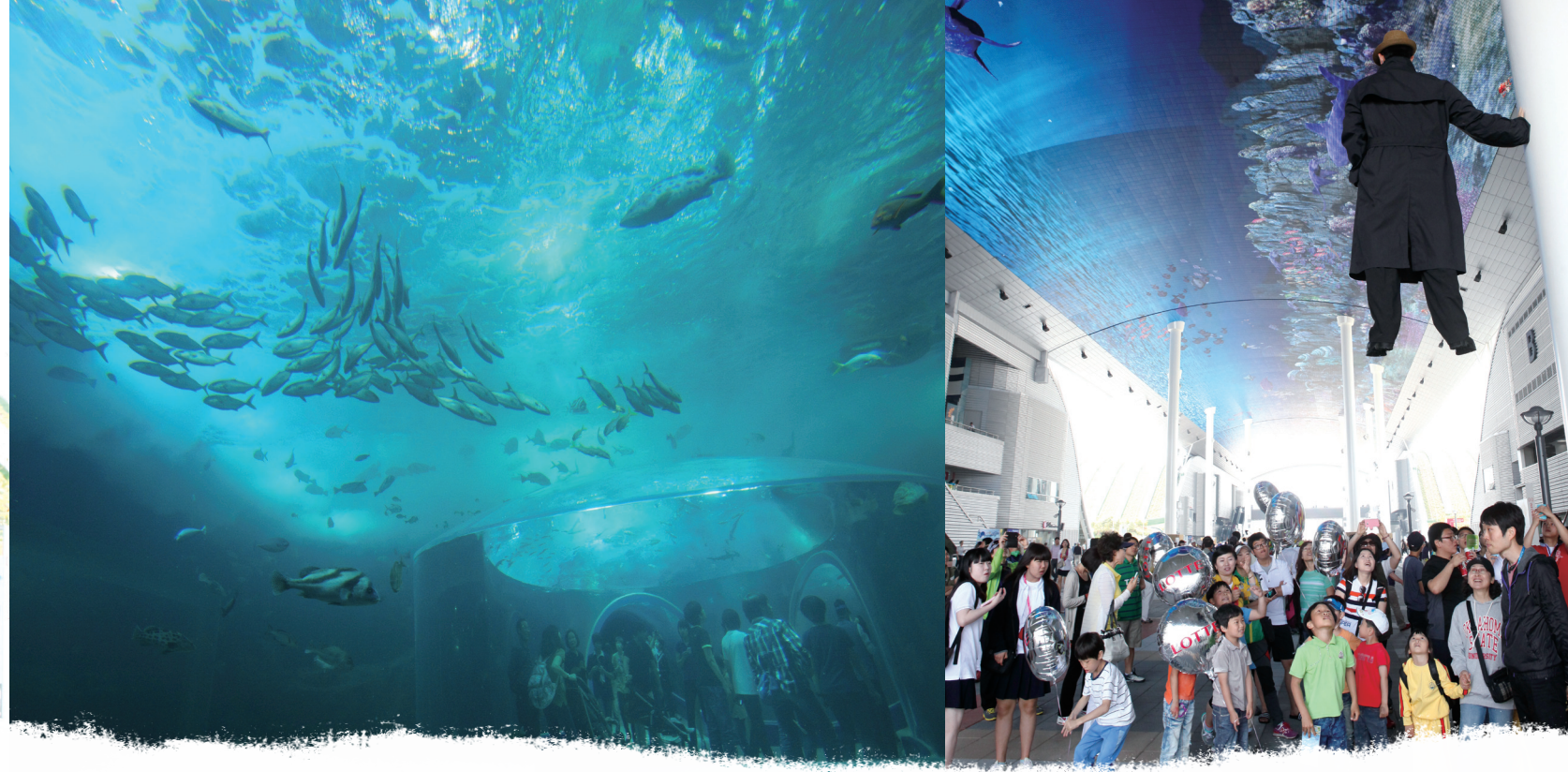
시원한 바다와 화려한 전망을 두 눈에

가장 먼저 간 곳은 이번 여수세계박람회의 랜드마크인 ‘스카이다워’. 과거 버려진 시멘트 저장창고를 재활용해 박람회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타워로 변신시켰다. 타워 외관에 설치된 하프 형상의 파이프 오르간은 반경 6km까지 소리가 울려 퍼질 정도로 큰 소리를 내 기네스 인증을 받았다.

타워에 입장하면 먼저 1호기에서 남해안의 비경을 담은 영상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선 영상이 끝난 후 풍등 날리기 이벤트를 하는데, 비록 직접 손으로 날리는 것이 아닌 영상 이미지이지만 소원을 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각자의 소원을 입력하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네 사람은 무언가를 열심히 적는다. 평소 마음속에 품어두었던 간절한 소망이 있나 보다. 풍등을 날려 보낸 후, 바라는 것이 있냐고 문자진재규 대리가 말한다. “요즘 아저씨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은 2012년 동안 지난날의 열정을 되찾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타연주, 사진 찍기, 여행과 같은 취미를 다시 시작해 젊은 오빠로 돌아가려고요. 하하.”

이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타워 꼭대기 층 전망대로 올라갔다. 전망대에서는 박람회장의 전경과 여수 시내, 바다와 오동도를 둘러볼 수 있다. 한쪽에는 바다가, 한쪽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시관이 한 데 어우러져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모습. 한없이 펼쳐진 여수 앞바다를 보고 있자니 타워 안에 있음에도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고 있는 듯한 기분까지 느껴진다.

전망을 본 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니 해수 담수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2호기로 연결된다. 기념 머그컵으로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신 후 박람회장을 둘러보기 위해 나섰다. 평소에도 이런 야외활동을 좋아하는 홍준기 사우는 특히 등산을 좋아



해 산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올해 초 회사에 입사 한 이후, 한동안 등산을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1~2번은 꼭 가려고 한다고. 이향호 대리 또한 전시회나 맛집 등 유명한 장소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며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소통하는 법을 아는 멋쟁이들

이들은 서로를 직장동료보다 매일 함께하는 벗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선배와 후배라는 이름 안에서 선을 긋지 않고 서로 먼저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바쁘다. “선배라고 혹은 후배라고 어려워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친한 척을 해요. 그러면 어색한 분위기가 한결 편해지거든요”, “저는 후배에게 동네 아는 형처럼 편안한 분위기로 다가가 언제든지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배가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소통하기가 더욱 쉽죠. 세아에삽의 선배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서로의 벽을 조금만 낮추면 업무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처받지 않고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취미가 비슷한 선배에게 다가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취미가 비슷하지 않더라도 공통점을 찾아 소통을 이어가려고 노력해요.”

나들이 내내 호탕한 웃음이 끊이지 않고 밝은 분위기가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평소 회사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 이들의 화합과 열정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아에삽의 미래를 조명하게 될까? 모든 것을 품고 흐르는 바다처럼 이들 또한 각자의 팀에서 중심이 되어 포용하는 세아의 일꾼이 되길 소망한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개최된 국제박람회로,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열린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관, 공연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 신항 일대
홈페이지 www.expo2012.kr
문 의 1577-2012

이운형 회장, 한국CEO대상 수상
5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창업대상 및 한국CEO대상 시상식'에서 이운형 회장이 한국CEO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전문경영인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운형 회장을 대상 수상자로 추대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세아그룹을 국내외 철강산업의 개척자로도 약시킨 이운형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업적에 대한 학계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세아홀딩스 김진규 대표가 이운형 회장을 대신해 상패를 수상했다.



철강사랑 마라톤 참가

5월 19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13회 철의 날 기념 '철강사랑 마라톤 대회'에 세아제강과 세아베스틸을 비롯한 그룹사 직원 약 5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매년 철의 날을 기념해 열리고 있는 철강사랑 마라톤 대회는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철강업계 관계자들의 단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행사로 자리를 잡아왔다. 올해 대회에는 철강업계 임직원을 비롯한 일반 마라톤 애호가 등 약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아베스틸 제강팀의 홍성호 사우가 남자 10km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Change Up 교육 시행
세아제강은 SG3, SG4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와 지속 성장을 위한 도전의식 고취를 위해 'Change Up 교육'을 실시했다. Change Up 교육은 5월 10일에 시작해 7월 14일까지 총 6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1박 3일 일정의 교육 프로그램은 1, 2일차 문제해결 능력 향상과 재무 회계 교육, 그리고 셀프 리더십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3일차에 오대산 무박 중주 행궁에 예정되어 있다.



포항시와 자율환경실천 협약서 체결

세아제강 포항공장이 6월 4일 포항시와 자율환경실천 기업협약을 체결했다. 포항공장은 친환경 기업 이미지 재고를 위해 2004년부터 포항시와 자율환경개선 실천협약을 맺어왔다. 2012년에는 녹색 성장과 친환경 이미지 구축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온실가스를 전년 대비 2,543t 절감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항공장은 녹색 성장과 그린 사업장 실현에 앞장서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와 2015년부터 시행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맞춰 대응 기반을 갖출 방침이다.

군산공장 봉사 동아리 봉사활동 참여

세아제강 군산공장 봉사 동아리 '천사를 닮은 사람들'이 5월 16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무료급식 봉사와 독거노인세대 도배작업을 실시했다. 군산공장은 매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1근근무 및 2근근무 후 무료급식 봉사와 독거노인세대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노력봉사'를 실시하며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과 행복 나눔 실천에 참여하고 있다.



효 행사 개최

세아베스틸은 5월 12일 사우들의 부모님 177명을 초청하여 효 행사를 개최했다. 단조사업부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회사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회사현황 소개를 시작으로, 현장 견학 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으로 이동, '심수봉 콘서트'를 관람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효 행사에 참석한 부모님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녀들이 근무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콘서트 관람까지 하게 되어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협력업체 안전 캠페인 실시

세아베스틸은 5월 10일 협력업체 신규 복지관 앞에서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현장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각종 산업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의식과 당위성을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신성종합개발 외 20개 업체 관리자들이 참석한 이번 협력업체 안전 캠페인은 분기 1회 시행을 계획했으나 철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수시로 캠페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독거노인 초청행사 개최

세아베스틸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3일 소외계층 노인들 약 150여 명을 초청하여 2012 사랑나눔 잔치를 개최했다. 군산공설시장 여성교육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사회의 무관심에 노출돼 있는 독거노인을 위해 마련됐으며, 여성자원 봉사회 회원들과 자원 봉사자들이 행사 진행을 위해 현장에서 힘을 보탰다. 세아베스틸은 3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후원과 함께 20여 명의 직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노사화합 체육대회 개최
세아특수강에서는 포항공장과 충주공장의 두 거점을 중심으로 노사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포항공장은 부산 및 대구 영업소와 연합하여 4월 15일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로 먼저 대회의 포문을 열었으며, 충주공장에서는 5월 13일 서울사무소와 함께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포항공장은 노조 행사와 별도로 진행되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통합 추진된 한편, 충주공장은 2008년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진 화합의 장이 됐다.



충주공장 장학금 전달

세아특수강 충주공장은 5월 31일 충주고 조범희 학생과 한림디자인고 이유진 학생에게 각각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세아특수강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며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의지를 실천하고자 추진된 가운데, 장학금을 받게 된 두 학생은 "세아그룹의 입사를 목표로 더욱 학업에 몰두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광주공장, YTN '우수기업 사례' 소개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내일희망일터만들기> 캠페인에 한국번디 광주공장이 장시간 근로개선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공장 노동조합 김원영 지부장이 우수사업장 선정에 대한 YTN 1분 릴레이 캠페인 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캠페인 방송으로 한국번디 광주공장은 장시간 근로 개선의 장점을 알리게 됐다. 한편, YTN 1분 릴레이는 5월 7일부터 14일 동안 1일 3회에 걸쳐 방영됐다.



광주공장 독거노인 초청행사 개최

4월 14일 한국번디 광주공장은 광주 광산구 소재의 노인복지센터와 공동으로 독거노인 행복동행 나들이 행사를 실시했다. 나들이는 열악한 생활 여건에 노출되어 있는 노인 30명을 초청하여 영광 아쿠아리움과 숲쟁이 꽃동산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광주공장은 수년째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목욕봉사, 방문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애진하고 있다.

세아
에샵

일본 2012 국제웰딩쇼 참가

세아에샵은 4월 11일부터 4월 14일 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12 국제웰딩쇼에 참가했다. 국제웰딩쇼는 세계적인 용접 전시회로 전 세계 20여 개국, 약 194사가 참여해왔다. 2년에 한 번씩 동경과 오사카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3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세아에샵 부스를 찾았고 하루 평균 2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올해 22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 세아에샵은 1998년부터 8회 연속 참가하고 있다.



한마음 그림 그리기 대회

세아에샵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19일 제15회 사원자녀 초청 한마음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 약 100여 명의 사원 가족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대회는 그림 그리기, 글짓기, 점심식사, 시상식 등 공식 일정 외에도 페이스페인팅, 댄스 경연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어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세아
M&S

배소로 증설 완료

세아 M&S는 약 1년 동안 추진해온 배소로 증설을 위해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성능 테스트 과정에 돌입했다. 새로운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배소로 가동을 잠시 중단하고 배소로 개조작업과 ESP, 그리고 Sonic Cooler와 Product Cooler를 연결하여 계획대로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증설 작업으로 월 450t에 머물렀던 최대 생산량을 약 2배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아
로지스

어린이재단 후원금 확대

세아로지스는 어린이재단 후원금을 3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번 증액하면서 6월 8일 어린이재단 경북동부지역본부에서 후원금 지원에 대한 새로운 약정을 체결했다. 세아로지스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재단과 결연하여 2005년 3월부터 지속적인 후원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2005년 당시 결연 후원금 50만 원으로 출발, 2008년에는 100만 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번 약정 체결로 혼자 먹는 밥상과 행복한 배움터 등 프로그램 후원과 더불어 지역의 빈곤 결손 어린이들을 지원하게 된다.

QSS 혁신 Kick Off

세아로지스는 4월 24일 대한민국 혁신허브(QSS) 활동의 일환인 Kick Off 행사를 개최했다. 포스코 혁신지원그룹 팀장과 컨설턴트가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세아로지스는 “안전하고, 청결한 물류사업장 만들기”라는 QSS 비전을 선포했으며, 전 임직원의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하여 비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결의했다.



강남
도시가스

행복나눔 봉사단 활동 재개

강남도시가스가 봉사활동 단체인 행복나눔 봉사단의 기쁨나눔팀과 사랑나눔팀은 4월 25일과 5월 12일 각각 '소외계층 집수리'와 '장애우 일일 나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기쁨나눔팀은 금천구청 사회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공급권역 내 독거노인 세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는 한편, 사랑나눔팀은 금천구립 주간보호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우 일일 나들이' 이벤트를 맡았다. 보호센터에 위탁된 장애우 10명과 함께 오전에는 보호센터에 모여 청소와 놀이학습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서울대공원을 관람했다.

사우동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세아인들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세아제강

•입사

유지현 본사회계팀
강보람 본사 STS영업팀
김민정 포항 업무지원팀
정다운 포항 물류팀
권나리 포항 설비보전팀
이세희 강관2생산팀
한동석 강관2 생산팀
이석희 강관2품질경영팀

•결혼

조진영 본사 수출1팀
김동현 본사 아연도강판영업팀
임재형 본사 특판팀

•출산

김학준 군산 품질경영팀
신재구 포항 생산2팀

•조의

안상렬 포항 생산1팀(장인)
박진욱 포항 생산1팀(모친)
이화우 포항 생산2팀(장모)
박철우 포항 설비보전팀(모친)
김원규 포항 설비보전팀(장모)

세아베스틸

•결혼

김신혁 소형정정팀
권태영 2차가공팀
서석민 공정연구그룹
한광열 일반단조팀
홍지환 단조팀
양광석 제강설비팀

•조의

소상진 공정연구그룹 (부친)
황성국 가공기술팀 (부친)
김흥주 제강설비팀 (부친)
김석주 소형압연팀 (부친)
심현길 소형압연팀 (모친)
정기혁 소형압연팀 (모친)
이영복 자재관리팀 (모친)
이춘복 소형정정팀 (모친)
박성현 주단기술팀 (장인)

세아특수강

•입사

이승훈 충주2설비팀

•결혼

전창연 충주 품질보증팀

•출산

송용석 서울 수주관리팀
김현욱 포항 업무지원팀

•조의

이상은 충주 업무지원팀(부친)
김봉길 포항 생산팀(부친)

한국번디

•입사

김평중 평택 생산팀
서정탁 평택 생산팀
장익훈 평택 연구1팀
김성규 평택 연구3팀
이재승 평택 연구3팀
차재민 평택 영업기획팀

김정섭 평택 해외사업지원팀
김병찬 광주 창원SM팀

•출산

최 성 평택 영업기획팀
김희숙 평택 품질경영팀
강영일 평택 생산팀

•조의

옥치명 평택 경영관리팀 (백부)
박용석 평택 생산팀(백부)

세아ESAB

•출산

이성훈 설비관리팀
김소영 생산팀
김민철 생산팀

•조의

김민섭 생산팀 (부친)

세아E&T

•입사

김현식 터보생산팀

•결혼

임 균 터보연구개발팀
조건찬 플랜트생산팀

•출산

유정환 터보품질보증팀

세아M&S

•입사

박세령 영업팀

정성희 영업팀

•출산

한상인 브리켓리칭파트

세아로지스

•입사

이동욱 포항 운영파트
신동주 수출입통관팀
이효인 국제물류팀

강남도시가스

•결혼

이재성 요금팀

해덕스틸

•결혼

박장훈 서울 영업팀

세대스틸

•입사

전영선 판매기획팀
편무범 광주 영업팀

QUIZ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다른 사진에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주세요.

〈정답표시는 엽서에 해주세요〉



* 사보참여 안내

〈세아가족〉사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세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특별한 행사나 사연이 있는 사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 바라며,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아가족〉은 세아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아인들을 위한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의 : cmk@seah.co.kr / 02-3783-8163

SeAH Reader's

두 달에 한 번 받아보는 사보지만 볼 때마다 새롭고 항상 발전하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회사 이야기라면 다소 딱딱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세아의 사보에는 가족과 같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이해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테마 스토리〉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 세아인 24시'를 잘 보았습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만족을 위해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박성옥 경기 김포시 하성면

문화는 관심을 받고 자 란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호에 '세아, 메세나로 문화예술의 꽃피우다'에서 보여준 우리 문화예술의 든든한 뿌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세아의 모습에 고마웠습니다. 공연, 미술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세아의 관심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문화 콘텐츠의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박소영 경기 화성시 반월동

지난 퀴즈 당첨자

박소영 경기 화성시 반월동
한희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홍주희 경남 창원시 회원구
이수정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권정아 강남도시가스
박동술 경북 영덕군 축산면
박성옥 경기 김포시 하성면
이해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강정환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이석호 서울 구로구 오류1동



〈지난호 퀴즈 정답〉

〈세아가족〉사보기자

전태원 세아제강 인력개발팀(본사)
최영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인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임아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
선민석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강관2공장)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
김동기 세아특수강 기획인사파트(서울)
이태원 세아특수강 혁신파트(본사)
박수연 한국번디 경영관리팀

손은숙 세아에삼 경영지원실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이상기 세아이엔티 플랜트사업지원팀
김민구 세아엠앤에스 서울사무소
손성영 강남도시가스 경영관리팀
이지훈 세아로지스 업무지원팀
권용재 해덕스틸 경영지원팀
김승렬 드림라인 경영지원팀

“
당신을 위한 상상력주식회사
”



당신의 생활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혁신은 계속될 것이다

당신이 상상하던 미래의 자동차를,
당신이 상상하던 건물과 다리를,
당신이 상상하던 내일의 IT산업과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지금, 이 땅에서 누군가는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종합 인프라기업 세아의 존재가치이자 미래다.

SeAH 세아

세아홀딩스 · 세아제강 · 세아베스틸 · 세아특수강 · 한국번디 · 세아 ESAB
세아메탈 · 세아 M&S · 세아네트웍스 · 강남도시가스 · 세아로지스